

The background is a collage of various Korean calligraphic elements. It includes large, bold characters, smaller characters, and circular stamps or seals. The overall style is traditional and artistic, with a focus on the texture and flow of the ink.

의미를 찾아서,

한 문장 레터링!

20년도 상반기 N개의방과후프로젝트 <우물밖디자인> 6.25~8.1.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나요?"

우물밖디자인 네 명의 노리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왜 불편함을 느꼈는지 글을 쓰며 돌아봤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환경, 역사, 사회 등' 큰 주제일 수도 있지만 '나'에서 비롯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꼭 눌러뒀던 내 생각을 10차시 동안 익힌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로 레터링 해봐요. 남과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문장으로요. 미뤄둔 불편함을 정리하면서 나는 더 나다워지고, 용감해질 거예요.

평소에 자주 들었던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라는 말을 주제로 잡았다. 사실 이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다. 기분이 상하고 '내가 진짜 예민한가?'라는 물음으로 자책을 하게 만든다. 문장을 보면 '왜'와 '그'의 보 부분이 휘어져있는데,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입모양을 표현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말이지만 이렇게 남에게 아무렇지 않게 툭툭 미운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은 악의 없이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으로 글자를 만들어봤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여러 가지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써오던 단어도 사실 알고 보면 약자 혐오일 수도 있고, 무심결에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혐오'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사회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혐오가 들어간 발언을 적게 한다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살레시오여고 자라(이한울)

야, 너는  
왜그렇게  
예민해?

강아지 파양이라는 결정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은 파양이라는 단 어조차 가슴에 없지요. 국내의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유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저는 SNS를 통해 반려견을 충동 입양했다가 반려견이 변을 먹었다는 이유로 파양을 하겠다고 환불해달라는 어떤 한 남자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매우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반려견이 떠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슬프고, 버려진 강아지가 애달프게 우는 모습도 차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할 때는 자신이 끝까지 케어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입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양 없게 책임감있게' 라는 문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의미하는 '개'를 강조하기 위해 '계'를 '개'로 바꾸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파양 없게**  
**책임감있게**

동아여고 리아(김가현)



막막함과 더불어 마음속 혼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문장을 어떻게 결정하지?' 고민하던 도중에 또 한 번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옛날에 보았던 애니메이션 중 '캐릭캐릭 체인지'에서 "나의 마음을 unlock!"이라는 말이 떠오른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여운을 남길 만큼 좋은 문장, 디자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이폰 잠금 화면인 '밀어서 잠금 해제'를 차용하기로 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열정 어린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언젠가 자신을 드러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만큼 오가는 얘기가 많아지고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들을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신을 살짝 밀어 마음속 갇힌 생각과 말들을 해보면 어떨까?

광주동신고 초이(최성민)

지난 7월 초반,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당한 한 4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체포되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유아 포르노 범죄자 손○○는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무려 '생후 6개월' 밖에 안된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절도죄와 유아 포르노 유포죄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똑같이 징역 18개월이라는 처벌은 내린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성별과 나이, 재력의 차이로 처벌을 다르게 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었을까? 나는 범죄 형량에 대한 정당성과 공평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간다고 보아 '정당성은 어디에?'라는 문장을 최종으로 레터링 하였다.

# 정당성은 어디에

전남여고 움냐(조희주)

**<아,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이런 비슷한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예민할까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쏟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에 '내가 예민한데 뭐!'라고 던지는 것 같은 한마디.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초이가 자라에게**

**<파양없게, 책임감있게>**

"글자들의 밑이나 'ㅇ'에 동물의 실루엣을 넣어 표현한 게 인상 깊었어요! 또 X자를 추가로 넣으면서 파양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가끔씩 고양이 파양 글이라거나 유기묘 글이 올라오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리아의 레터링을 통해 파양되는 반려동물이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웬나가 리아에게**

**<당신을 잠금해제>**

"자신감 없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초이가 그대로 해주었네요. 제 친구는 이런 글을 보며 다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친구에게 초이 글을 보여 줘야겠어요. 타이포도 또래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와닿고 신기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리아가 초이에게**

**<정당성은 어디에>**

"저도 이 유아 포르노 범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웬나가 올려준 형법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생계형 범죄자와 같은 형량이라는 점은 그 둘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웬나가 고른 글자가 묵직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자라가 웬나에게**





우리가 쌓아 올린 이야기